

34

2025
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나병서
아주대 경영학과
(인천외고)

성적 부담에도 <경제> 도전 외고생 한계 돌파한 선택 됐죠

강점은 언어였지만 마음은 숫자와 통계로 향했다. 녹록지 않은 외국어고 생활에도 주저앉지 않았다. 성적이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생각에 불안하기도 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 도전의 연속은 그토록 원하던 경영학과 합격으로 이끌었다.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미래에 대한 도전을 이어가는 병서씨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취재 임하은 기자 im@naeil.com 사진 배지은

넘어져도 일어나! 좌절 대신 도전

중학교 영어 성적이 잘 나왔던 병서씨는 고민 끝에 외고에 지원했다. 일반고에서 자연 계열 학생과 경쟁하기보다 강점이 있던 영어와 일본어 실력을 살리고자 했다. 특히 한자 준3급까지 공부한 경험이 있어 한자와 비슷한 점이 많은 일본어를 전공하는 전략이 성적 확보에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일본 여행을 자주 가고 도쿄의 풍경을 좋아해서 일본어가 낯설지 않았어요. 한자를 오랫동안 공부했는데 일본어와 비슷한 부분이 많더라고요. 비교적 공부가 수월할 거란 기대가 있었어요.”

생각과 달리 외고에서 상위권에 드는 일은 쉽지 않았다. 외국어 과목이 많고 암기를 잘하는 학생이 모여 있어 사회·영어 과목 성적을 잘 받기 어려웠다. 성적 상승에 강한 의지를 보였던 병서씨는 공부엔 왕도가 없다고 생각해 최대한 많은 시간을 쏟기로 했다. 시험 결과에 상관없이 공부 시간을 유지했고, 좋지 않은 성적을 받아든 날에도 좌절하지 않고 빠르게 일어나 다음 기회를 준비했다. 덕분에 성적은 매 학기 상승 곡선을 그렸다.

“외고나 자사고처럼 성적 확보가 치열한 고교에서는 회복 탄력성이 필수예요. 혼자 공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좋지 않은 성적에도 이를 동기부여 삼아 끝까지 열심히 할 수 있다면 외고 진학을 추천해요. 단, 대학 진학 실적만을 보고 외고에 입학하는 건 권하지 않아요. 특목·자사고에 진학하면 보다 다양한 교내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 학생부종합전형 지원이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열심히 하는 학생이 많다는 점도 감안해야 하죠. 혼자 공부하는 데 자신이 없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는 학생이라면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잘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언어에서 숫자로, 통계에서 경영·경제로

병서씨는 줄곧 경제·경영·통계 등 상경 계열에 관심을 보였다. 처음엔 사건·사고를 빠르게 전달하는 모습이 멋져 기자가 되고 싶었다. 한데 ‘기자’라는 직업보다 ‘기사’ 자체에 집중하다 보니 통계 자료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상당수의 기사는 부동산이나 경제 지표 등 객관적인 통계 자료를 많이 다룬다. 이를 직접 해석하려고 시도하다 보니 관심사는 경제로, 또다시 경영으로 확장됐다.

3학년 때까지 이어진 관심은 <경제> 수강에 도전하기까지 이르렀다. 상경 계열을 희망하더라도 성적이 상승·유지되지 않으면 불리하다고 판단해 어문 계열로 전환하는 학생이 적지 않다 보니 3학년 때 열린 <경제>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은 25명에 불과했다. 개설을 위한 최소 인원에 가까웠다. 1등급은 1명, 2등급은 2명만이 받을 수 있었다.

“<경제> 이수는 제게 큰 도전이었어요. 수강 인원이 너무 적은 데다 상위권 친구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한데 이런 특수한 상황이 오히려 경영·경제에 관한 관심을 드러내기엔 좋은 기회 같았어요. 외고는 외국어 과목이 많이 열려 선택 과목으로 관심사를 드러내기 쉽거든요. 어렵더라도 무조건 <경제>를 수강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이유였죠. 비록 원하는 성적을 받진 못했지만 관심 분야인 만큼 깊이 파고드는 공부를 주도적으로 할 수 있었어요.”

병서씨는 특히 기술경영·기술무역에 관심이 많아 <경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과목에서 이를 접목시켰다. <화법과 작문>의 반대신문식 토론문 작성 활동에서는 첨단 기업의 해외 합작 투자에 대한 사전 승인 정책 시행에 관해 찬성 입장을 준비했다. 입론부터 반대신문, 상대측 논거에 대한 반박 질문까지 생각해보면서 다양한 견해로 사안을 바라보는 시야를 배울 수 있었다.

“내 입장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문제의 원

인과 해결책을 파악해볼 수 있어 좋았어요. 기술무역과 관련된 기사를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처럼 실제 발효된 법을 추상적으로 하는데 그치지 않고 내 지식으로 만들 수 있었죠.”

〈화법과 작문〉에서 살펴본 기술무역 사례는 〈확률과 통계〉의 탐구 활동으로 이어졌다. 통계청에서 기술무역 수출 및 수입 현황 표를 찾아보다가 새로운 궁금증이 생겼다. 기술무역 규모는 커지는데 무역수지가 만성 적자라는 사실이 이상하다고 느꼈고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마침 통계를 배우고 있을 때라 이 표를 자세히 분석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기술무역의 수출과 도입, 기술무역 수지의 추이를 한눈에 확인하기 위해 두 개의 y축을 이용해 꺾은선그래프와 막대그래프를 혼합한 차트를 제작했죠. 그 결과 제조업 중심의 육성 전략이 무역 수지의 흑자 요인임과 동시에 적자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제품을 만드는 원천 기술을 선진국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더라고요. 유명 분야의 원천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선 글로벌 기술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발표했죠.”

예상 밖 질문? 만능 답변으로 돌파!

병서씨는 수시에서 종합전형으로 6개 대학에 지원했다. 서류형 4곳·면접형 2곳에 지원한 끝에 아주대 경영학과를 최종 선택했다. 병서씨가 지원한 ACE전형은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는데, 30%가 반영돼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한다.

“면접을 준비할 땐 세 가지가 중요해요. 학생부 숙지, 예상 질문 준비, 그리고 지원 학과와 관련된 시사·경제 상식이죠.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예상치 못한 질문은 나오기 마련이에요. 전 이런 경우를 대비해 어떤 질문이 나와도 대답할 수 있는 만



능 답변을 만들어뒀어요. 관심 분야인 경영의 정의를 얘기하면서 시간을 확보하고, 그 정의를 답변에 녹여내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대학 진학 후에도 병서씨의 도전은 계속된다. 고등학생 때 막연히 꿈꿨던 경영 컨설턴트에 여전히 관심이 있지만 준비 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다고. 뛰어난 경영 컨설턴트가 되려면 기업 실무 경험, 재무관리와 회계, 법적 지식 등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생각해 CPA 자격증 취득을 고려 중이다. 병서씨는 끊임없이 진로를 고민하는 후배들에게 어떤 길이든 괜찮다고 조언한다.

“전 원하는 학과에 진학해 생각했던 공부를 하고 있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대학의 복수전공·전과 제도를 활용해 다른 학문을 배울 수 있고, 생각지 못하게 새로운 흥미를 찾는 친구들도 많더라고요. 중간에 진로를 바꿔서 처음에 원했던 학과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인생이 아예 바뀌는 건 아니니 너무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의미 있었던 선택 과목

■ **《경제》** 경제의 본질을 자세히 다룬 고목이다. 《경제》에서 배운 내용만으로도 웬만한 경제 기사나 금리 등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한일 통화 스와프 협정의 배경과 효과’를 주제로 심층 탐구를 진행하는 등 관심 있는 국가 간 무역이나 경제 제도를 직접 비교하고 파고들 수 있어 재미있었다.

■ <수학 I> 피보나치수열이 사회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경험이 인상 깊었다. 주식에 관심이 많았는데, 금융 시장에서 가격의 이동 패턴이 피보나치 수열의 형태를 따른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됐을 때 무척 흥미로웠다.

■ **〈통합과학〉** 인공지능 CT로 간암 진단이 가능해졌다는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의학 기술의 발전이 흥미로웠고 스스로 조사해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기억에 남았다.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1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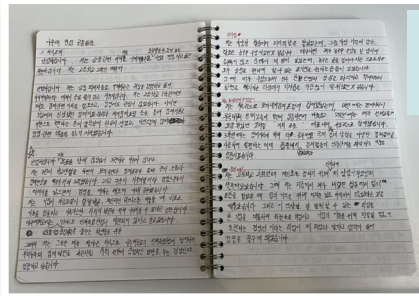
1학년 **〈수학〉** 확률예보에 대해 조사해 발표한. 확률예보는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기상청의 정보와 다양한 천문학적 데이터를 수집·분석하고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값으로 날씨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일본어회화Ⅰ〉** 일본의 버블 경제에 관한 통계를 조사해 발표하고 보고서를 제출함

2학년

2학년 **〈논술〉** 통계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대학 합격 여부를 예로 들어 합격자 수가 많음에도 합격률이 낮아 보이는 역설적인 상황을 ‘**심슨의 역설**’이라는 개념을 통해 설명한 **〈생활과 윤리〉** 로스차일드 가문과 1815년 워털루 전투를 중심으로 거진 뉴스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

3학년

3학년 **〈실용경제〉** 경제 활동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에 대해 탐색하는 과정에서 학술 자료를 통해 예금자 보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탐구함 **〈사회문제탐구〉** '글로벌 금융 회사의 기술 위험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기사를 통해 최근 금융 회사의 주요한 위험 관리 대상으로 부각된 요소를 분석하고, 실효성 있는 비상 대응 계획의 필요성을 강조함



아주대 면접을
준비하면서 작성한 면접
대비 노트.

<화법과 작문 - 반대신문식 토론>

4판 14번 이름: 나병서

1. **요론 주제 정하기**(진료와 관련된 사회 이슈 중에서 선택)
첨단기업의 해외 협력투자에 대한 사전 승인 정책 시행을 찬성한다.
2. **입론**(근거를 반드시 두 가지 이상 제시하여 구성할 것)
 - 법적, 행정적으로 관리 대상인 국가 핵심기술이 국외로 유출 될 수 있다.
 - 기술 보호 및 관련 규제의 강화는 오늘날 많은 나라에서 나타나는 국제적 추세이다.

3. 반대신문(예상되는 상대의 입론에 대해 질문할 거리 생성하기)

- 1) 우리나라는 상대적 빈곤 국가
① 우리나라는 어떤 빈도, 빈격 등 원단가 분야에서 미국보다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
② 경제적으로 사천 승인을 받으려는 것이 산업에 대한 투자 과정에서 범법행위를 유발할 수 있다
- 2) 상대적 논자 대한 반박 질문
① 이를 통해 원단가들의 핵심 기술이 유출된다면 그 기술에 투입된 국가 보조금 및 투자금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② 원단단단 투자 과정에서 이 때문에 범법행위를 저질렀던 사례 자체가 있는가?

- 1-3월을 바탕으로 2018년 작심
 “일본은 한때, 행정조직으로 작심과 기업의 책임기술을 분리해 수출을 늘리 수 있다는 철학에
 찬반이 엇갈려 한때 합작기업이 어려웠지만 과정에서 신인 수출이 늘려나가기 시작했다.”
 오늘날에는 신인 기술에 책임기술이 있는 한, 합작기술을 이용해서 국가 간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2002년 12월 22일 유엔은 정부24인 6시간짜리 “합작기업의 투자 촉진”을
 합의 했는데, 다스르는데, 이어서, 비로써 2014년 14,7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작성한 “G”
 보고서가 있다. 유엔 통해 현재까지 유네스코와 유네스코와 민간사회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또한 유네스코는 현재 민간연구기관 감시체(IRA)를 유네스코에 등록 및 유네스코의
 기술과 경영이 있는 기업, 유네스코를 시험하고 있다. 유네스코 유네스코는 유네스코에 대한
 유네스코를 국제적 추세에 대한 신인 수출을 통해 시행하는 기술이 합법적이고 간헐적
 거래에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대신문

〈화법과 작문〉 시간에 작성한 반대신문식 토론문. '첨단 기업의 해외 합작 투자에 대한 사전 승인 정책 시행' 주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준비했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 유출을 보호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사용하면 되지 않나요?

한성록 논거 반박(1):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이 유출되기 시작한다면 그 기술에 투자되었던 투자금 및 국가 보조금이 점차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고, 이를 유발시킨 새로운 기술들이 다국에서 개발되기 시작하면서 경제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반대측 논거(2): 입법에서 우리나라의 첨단기술에 대한 규제 및 사전 승인을 통해 기술을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거래되게 만들어야한다고 말하셨습니다. 실제로 첨단 기술이 범법행위를 통해 유출된 사례가 있었나요?

한정폭 논거 반박(2) 국제정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에는 국제정세는 국제 제재수 수출이 통제된 반도체 장비를 정부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 수출을 일체를 적발하였고, 이후 적발된 업체의 대표를 미국의 제재 대상 기업에 반도체 기술을 이전한 혐의로 미국 재무부의 특별지정경제대상 명단에

- 활동 등을 매우 고집질
- 반민선언의 효력은 주장과 그에 따른 주장 선택에 의해 일단 반민선언 효력은 구하는 의지를 통해, 반민선언이 IT강국, 첨단산업의 선두주자로 불리지만 그 이면에는 이러한 첨단기술이 굴복을 얻는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이 이들 강국들이 다른 나라의 기술개발을 막고자 하는 이유일 수 있다. 반민선언을 통해 기술이 소진, 정제 이전을 지연시키고,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시키지 못하게 하는 비효율을 유발하고, 불확실한 기업에 대한 투자를 유발하도록 함으로써 결국에 기술개발이 정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국가의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와 기술개발의 목표를 실현하는데 매우 유리하다. 국가의 기술을 적절히 선진화 기술개발에 집중할 수 있다. 효율적인 기술 경쟁이 가능 함을 다짐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주요 창의적 체험 활동

■ **진로 활동(1학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이 이웃 나라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모의 세계경제포럼에 참가함. 노르웨이 대표를 맡아 전쟁 중인 두 나라와 노르웨이 간 천연자원을 둘러싼 이해관계에 대해 알게 됨

■ **동아리 활동(2학년)** 영자 신문반에서 활동하며 미국 유명 글로벌 은행의 파산 원인에 관한 영어 신문 기사를 작성함. 주제 관련 미국 내 영어 기사를 스스로 탐색하며 은행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미국 내 급격한 물가 상승을 대비한 정부의 금리 조정 실패를 지적함

■ **자율 활동(3학년)** ‘폰지 사기’ 과정을 사회공학 기법으로 분석하고 학술자료 ‘금융사기 취약성과 개인 특성’을 토대로 발생 요인을 심리학적 관점에서 해석함^①